

## 한 남자의 죽음

어제 한 남자가 세상을 떠났다. 나는 그를 잘 알지 못한다. 평생동안 그와 세번을 만난 것이 전부다. 한번은 그가 결혼할 때, 결혼식장에서 처음 얼굴을 보았고, 두번째는 그가 벤처회사를 운영할 때, 내 회사와 기술제휴를 검토하기 위해 잠깐 만나고, 마지막은 몇달 전에 그의 아들 결혼식장에서 만난 것이 전부다. 하지만 그는 나와 유사한 과거를 가지고 있다. 그의 나이는 나와 동갑이니 올해로 60년을 살았다. 그는 서울의 명문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컴퓨터 전산학과를 졸업했다. 대기업의 전산실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와 프로그래머로 근무하다가 1990 년대에 벤처기업을 만들어 창업했다. 내가 벤처기업을 창업한 시기와 거의 유사한 시점이다. 하지만 그와 나는 IMF 때 비슷한 시기에 회사를 정리했다는걸 나중에야 알았다. 그리고 그는 친구와 함께 무역사업을 하기 위해 캄보디아로 건너갔다. 그리고는 15 년동안 소식이 두절된 채 아무도 그의 소식을 알지 못했다. 심지어 그의 아내와 가족들도 소식을 몰랐다. 그러던 그가 작년 여름에 가족들이 사는 미국으로 온 것이다. 이미 그는 과거에 내가 기억하던 잘 생긴 미남 얼굴이 아니었다.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왔다. 늙고 초라하며 왜소한 시골 늙은이었다. 그는 이미 결핵 말기로 병원에서 수술 한번 해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다. 나는 그가 15 년동안 캄보디아에서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 그곳에는 누가 살고 있는지, 미국에는 왜 왔는지, 본인의 병을 그 지경이 될 때까지 모르고 있었는지, 그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그가 아무런 재산도 남겨놓지 않고 훌쩍 캄보디아로 떠났으니 그의 아내와 자식들의 고생과 힘든 세월들을 어찌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하지만 장례식장에 놓여있는 그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그를 이해할 수 있을 것도 같았다. 이미 본인은 고인이 되었으니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내가 그 시절에 겪었던 일들을 반추해 보니 나도 것처럼 그럴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나도 한국의 IMF 시절, 회사도 모두 잃고, 재산도 모두 잃고, 사람도 모두 잃고, 희망도 모두 잃었다고 생각했을 때, 나는 처음으로 죽음을 생각했다. 어머니도, 아내도, 자식도 그 누구도 보이지 않았다. 오로지 실패한 내 모습만 보였다. 이렇게까지 모든걸 잃어버린 내 자신을 내가 용서할 수

없었던 것이다. 평생 부자로, 성공한 사람으로 살 것이라 믿었는데 하루 아침에 낭떠리지 절벽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종지부를 찍으니 살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이다. 앞으로 무엇을 하며 먹고 살아야 할지 생각조차 하기 싫었다. 다시 재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가족들 뿐만 아니라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과도 연락을 끊고 몇날 며칠을 이름모를 곳에서 혼자 술만 마셨다. 그러던 어느날 어머니가 나를 찾으러 서울역 지하도에 나가신다는 것이다. 그 당시에는 기차역이나 지하철역 바닥에 노숙자들이 넘쳐났다. 아내도 매일 눈물로 보낸다니 가족들에게 못할 노릇이었다. 직원들 몇명도 다른 회사로 가지 않고 나를 기다린다는 것이다. 아직도 나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한, 이런 모습으로 생을 마감할 수는 없었다.

나는 그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캄보디아로 떠난 것도 내 한몸 살기 위해서 떠났을까.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실패한 모습으로 떠나지만 성공한 모습으로 돌아오기 위해 낯선 타국에서 혼자 외롭게 살았을 것이다. 조금만 고생하면 되리라 믿었을 것이다. 성공하면 연락한다는 것이 한달, 일년 이렇게 세월만 흘렀을 것이다. 15년이라는 세월은 남자가 혼자 살기에는 너무 가혹한 시간들이다. 사랑하는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이 더 큰 미안함을 낳는다. 미안함은 자학이 되고 연락을 하지 못하는 빌미가 된다. 긴 외로움과 그리움은 자기 상실과 삶의 포기로 이어지고 결국은 몸쓸 병을 얻게 된 것일게다. 나는 그와 비교해 위안을 받고자 함이 아니다. 나의 삶은 지금도 궁핍하고 곤고하다.

나는 15년전 그날 이후로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그래서 매일 <죽는 연습>을 한다. 누구나 언젠가는 죽겠지만, 이왕이면 <잘 죽자>가 나의 인생 지표가 되었다. 잘 죽기 위해서는 두가지를 버려야 한다. 첫째는 돈을 많이 벌겠다는 욕심을 내려 놓아야 한다. 부자가 되기 위한 삶의 과정을 포기해야 한다. 더구나 무일푼이 되었으니 과거처럼 부자가 될려고 하면 과거보다 더 많은 것을 잃어버려야 한다. 먹고 살기 위해 열심히 살 뿐이다.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고 감사해야 한다. 두번째는 성공하려고 하지 말자. 명예든, 사회적 지위든,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심을 내려놓아야 한다. 남들보다 출세를 하기 위해서는 경쟁해야 되고, 이겨야 한다. 그럴려면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나 자신도 잃어버리게 된다. <낮은 자>와 <작은 자>가 되자. 가능하면 나의 모습보다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보자. 특히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지 말자. 나는 그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지 모른다. 누구나 죽는 날까지 자신의 나이테를 볼 수가 없다. 나의 나이테는 이미 살아온 세월만큼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주변을 돌아보고, 내가 믿는 그분을 믿다가 오늘이라도 오라고 하면 미련없이 가자. 사는동안 즐겁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죽자. 돈이며, 명예며, 직위며 하는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몸에 달고 가지말자. 부끄러운 모습으로, 한이 많은 모습으로 죽지말자. 아프면 아픈대로, 건강하면 건강한대로 열심히 착하게 살다가 죽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 살지말자. 함께 의지하며 위로하며 살다가 죽자. 잘 죽자...